

CULTURE NOTE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라온
문화
예술
관
줄거운 내일

2023 1-3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1 Jan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신정	2	3	4	5	6	7 ● 플리트 추상회 리사이틀 'Romantique Series I'
8 ● 이은혜&김은총 듀오 리사이틀	9	10	11	12	13	14 ●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 마트에 간 꽁지'
15 ●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 마트에 간 꽁지'	16	17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75회 정기연주회	18	19 ● 진주다별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	21
22 설날	23	24	25	26	27	28
29 ● 2023 데뷔 15주년 김창원밴드 전국투어 '아니 별싸' - 진주	30	31				

2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 진주시립교향악단 98회 정기연주회	3 ● 제4회 아이빛님 수정 어린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변진섭 전국투어콘서트 :변천사	27	28				

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삼일절	2	3	4 ●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 제13회 진주 난연합회 춘란 전시대회(~5일)
5 ● 가족뮤지컬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6	7	8	9 ● 아생화 개인 사진전(~14일)	10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진주	11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진주
12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진주	13	14	15	16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76회 정기연주회 ● 제9회 진주사진사랑 작품전 (~21일) ● 민화, 길상을 말하다(~28일)	17	18 ● 제23회 진주소모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	20	21 ● 원튼 마샬리스 재즈 콘서트	22	23 ● 안점태 개인전(~28일)	24	25 ● 2023 김연자 콘서트
26	27	28	29	30 ● 제16회 참진주수채화회 (~4월 3일)	31	

2023

... 흑토끼의 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완연한 요즘입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경상남도 거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공공 공연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클래식과 발레,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 공연을 통해, 경남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전시와 문화예술교육 등 다변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도민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민의 행복을 위해 올해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원튼 마살리스 재즈 콘서트

3. 21.(화) 19:30

재즈계의 살아 있는 전설! 트럼펫 연주자 원튼 마살리스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온다. 원튼 마살리스는 재즈 피아니스트 앤리스 마살리스를 아버지로, 색소폰 연주자 브랜포드 마살리스를 형으로 둔 재즈 명문가 출신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선보였고, 14살 때 뉴올리언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협연할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원튼 마살리스는 총 9번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특히, 1983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재즈와 클래식 음반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아티스트가 되었고, 이어 1984년 재즈와 클래식 부문에서 다시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유일하게 5년(1983~1987년) 연속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원튼 마살리스는 백과사전처럼 완벽한 트럼펫 기교를 구사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낸다. 그는 뉴올리언스 재즈부터 모던 재즈까지 한계 없는 스펙트럼을 선사하며, 전 세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독보적인 명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원튼 마살리스의 재즈 콘서트를 놓치지 말자.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

5. 4.(목) / 5. 5.(금) / 5. 6.(토)

가는 곳마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가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온다. 슬라바 폴루닌은 17세에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주했으나, 마침에 매료되어 대학을 그만두고, 마임 스튜디오에서 광대극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9년 '리체데이' 극단을 창단,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자신의 극단을 단숨에 러시아의 대표 광대 극단으로 만든다. 이후 슬라바 폴루닌은 영국에 진출해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세계 공연예술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작품이 20년째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스노우쇼'이다. 1993년에 초연한 '스노우쇼'는 지금까지 영국의 타임 아웃상과 올리비에상, 러시아의 골든 마스크상, 바르셀로나 골든 노우즈, 뉴욕 드라마 데스크 상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계 연극상을 휩쓸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스노우쇼'를 찾은 관객들은 공연장을 들어선 순간, 무대와 객석 구석구석에 수북이 쌓인 눈을 만날 수 있다. 노란색 포대 자루 같은 옷을 입고 빨간색 큰 코를 가진 광대가 나타나며, 공연은 시작된다. 무성 영화 속의 칠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8명의 광대들은 아무런 대사 없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짧은 에피소드들을 펼쳐낸다. 단순한 오브제와 음향 효과, 음악, 조명 같은 무대 장치들을 정교하게 사용하여, 눈부시게 화려한 장면을 선보인다. 특히, 객석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엔딩 장면은 '스노우쇼'를 본 관객들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인생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분이라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를 만나보자.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with 한재민

5. 26.(금)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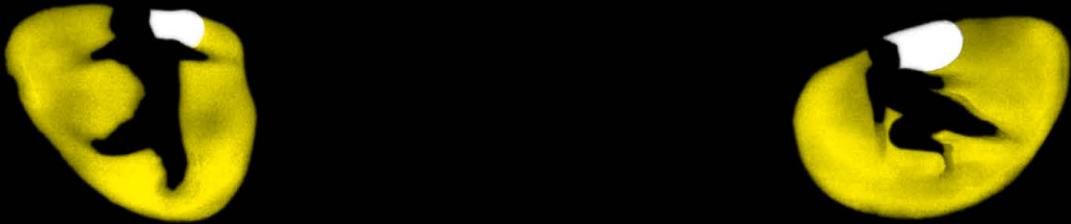
룩셈부르크 필하모닉과 첼리스트 한재민이 만났다. 룩셈부르크 필하모닉(Luxembourg Philharmonic)은 1933년 설립된 이후, 룩셈부르크 라디오 방송과 유럽 중심 국가들의 문화적 활력을 구현해왔다. 약 20개국에서 98명의 음악가들이 모인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은 앙리 펜시스, 칼 멜레스, 루이 드 프로망, 레오플트 하거, 데이비드 셀론 등의 상임 지휘자들이 구축한 우아하고도 유려한 사운드로 유명하다. 2003년부터는 학생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을 위한 콘서트 및 워크숍을 기획하여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다양한 음악가들과 함께 협연하며 독창적이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많이 선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을 지휘하게 된 구스타보 히메노(Gustavo Gimeno)는 처음으로 국내 관객들을 만난다. 발렌시아 출생으로, 2012년부터 마리스 앤손스를 사사하며 국제적인 커리어를 쌓았고, 베르나르트 하이팅크와 클라우디오 아바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2015년부터 룩셈부르크 필하모닉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다니엘 바렌보임, 고토에 카퓌송, 유자 왕, 크리스티안 짐머만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협연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협연에는 2022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과 동유럽 최고의 페스티벌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음악계를 놀라게 한 첼리스트 한재민이 함께한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로 선발되어 재학 중인 한재민은 만 5세에 첼로를 시작하여 일찍부터 영재로 주목받았다. 이후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오사카국제음악콩쿠르, 헝가리 다비드 포퍼 국제 첼로 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하며 탁월한 음악성을 인정받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등 최정상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캣츠 오리지널 내한

6. 2.(금) 19:30 / 6. 3.(토) 14:00, 19:00 / 6. 4.(일) 14:00, 19:00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밤, 고양이들만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뮤지컬 <캣츠>가 경남도민을 만난다. 영국의 대문호 T.S.엘리엇의 시를 토대로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가 콤비를 이루어 탄생시킨 최고의 역작 <캣츠>는 1983년 작품상을 비롯해 토니상 7개 부문 수상했다.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21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18년이라는 역사적인 장기 공연 기록을 수립했고, 전 세계 30여 개국, 300여 개 도시에서 7천3백만 관객을 감동시키며,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신화적인 작품이다. 환상적인 무대와 정교한 의상, 고양이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신비로운 분장, 아름다운 음악과 춤으로 국경과 세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뮤지컬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자리했으며, 2003년 국내 정식 라이선스 첫 공연 이후, 매 공연마다 흥행불패의 신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 공연된 뮤지컬 중 최초로 누적관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최고의 흥행성 및 관객만족도를 입증했다. 특히 뮤지컬 넘버 'Memory'는 일레인 페이지,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사라 브라이트만을 비롯하여 150여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에 의해 180회 이상 레코딩 된 세계적인 명곡이다.



CATS

킹스 싱어즈 콘서트

10. 19.(목) 19:30

아카펠라를 새로운 장르로 발전시키고 대중화시킨 선구자적 아티스트 킹스 싱어즈! 그들이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창단 이후 50년 간, 투명한 사운드와 정제된 음색, 그리고 완벽한 하모니로 비교할 수 없는 음악성을 선보이며, 유쾌한 퍼포먼스와 함께 세계 청중들을 매료시켜왔다. 이런 킹스 싱어즈만의 사운드는 카운터 테너 두 명, 테너 한 명, 바리톤 두 명, 베이스 한 명으로 구성된 이들만의 독특한 편성에서 비롯되며, 이례적으로 저음 파트를 고음 파트와 같은 비율로 배치해 풍부한 울림을 자신들의 무기로 장착했다. '런던 타임즈'는 단연 최고의 보컬 그룹이라 평했으며, '클래식 투데이'에서는 킹스 싱어즈의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유쾌하고 개성있는 공연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클래식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만의 것으로 들려줌으로써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환상적인 이들의 보이스는 150장이 넘는 앨범을 녹음해 오면서 많은 앨범상과 함께 눈에 띄는 호평을 받았다. 2009년 그래미 어워드 클래식 부문 '베스트 클래식 크로스오버 앨범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그라모폰 클래식 명예의 전당 성악 양상을 부문에 이름을 올리면서 클래식 레코딩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인정받았다. 오는 10월, 천상의 아카펠라 킹스 싱어즈의 무대로 깊어가는 가을 밤의 낭만을 즐겨보자.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2. 1.(금) 19:30 / 12. 2.(토) 15:00

매년 겨울이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전령사인 '호두까기인형'이 2023년 12월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은 1892년 마린스키발레단에 의해 세계 초연된 이후 129년간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은 1986년 한국 초연 이후 36년째 정기공연 연속 매진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실감나는 전투,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얀 눈송이 요정들의 우아한 월츠, 과자나라에서 펼쳐지는 러시아와 스페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춤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차이콥스키 음악에 맞춘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의 그랑 파드되도 놓치면 안 될 명장면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5년부터 한국 발레단 최초로 해외투어를 시작해 '발레의 변방'이나 다름없었던 한국 발레를 세계무대에 소개해왔다. 그 결과, 2001년 국내 최초로 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뮤직센터에서 공연해 뉴욕타임스의 호평을 받았다. 2011년부터 '유니버설발레단 월드투어'를 통해서 본격적인 '발레 한류'를 개척하고 있으며, 창작 발레 <심청>은 발레의 본고장 러시아와 프랑스에 초청되어 '한국 발레의 역수출'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밖에도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등 아메리카와 남아공, 오만 등 중동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전세계 주요국에 초청받아 발레단의 공연뿐 아니라, 수준 높은 발레 교육도 큰 관심을 받으며 '한국 발레'의 입지를 단단히 정착시키고 있다.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인형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경남도립예술단 창작관 개관

경남도민의 문화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창단된 경남도립예술단! 경남도민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남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춰,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립예술단 창단에 발맞춰, 원활한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7월 연습실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전용 연습 공간 신축에 나섰다.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공모와 용역을 진행하며, 지난 2021년 11월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2022년 11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1개동 2층 규모의 연습실이 준공되었다. 지상 1층(383.32m²)에는 극단 전용 연습실과 탈의실, 창고 등이 위치해 있고, 지상 2층(376.69m²)에는 종합 연습실과 수유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경남도립예술단 창작관은 예술단 연습 공간은 물론, 장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경남도립예술단 창작관은 예술단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경남의 문화예술 가치를 더욱 빛내는 공간으로 도민의 옆에 견고히 자리할 것이다.

